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2부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금년 상반기에 우리 교회에 오신 형제자매들을 환영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비슷한 취미를 가진 교우들이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십시오.

18일(수) 오전 10시에 모여 서오릉으로 나들이 갑니다.

유증희 집사님께서 교회 본당 냉방기를 봉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독교연구소가 주최하는 예수 포럼이 내일 오후 5시 30분에 청파교회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학술원 회원이며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장이신 한림대 교수 정진홍 박사입니다.

6월 17일은 <사막화 방지의 날>입니다. 고기를 덜 먹고, 종이 한 장을 덜 쓰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도 다르푸르에 나무를 심기 위한 일에도 적극 참여하십시오.

새교우 소개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주일 아침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공허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대화와 이해의 장은 사라지고 불통과 단절의 장벽만이 높아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일치와 소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마음을 열게 해주십시오. 나와 너 사이에 계시는 주님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주님, 탐욕으로 달구어진 우리들의 마음으로 인하여 세상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옥토는 사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하늘 바람이 그립고 주님의 넓은 품 그늘이 그립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타오르는 이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타오르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의 온기로 온갖 장벽들을 넘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한상의 정영선 김준우 우순덕 김정섭 배삼순 권호천 신윤정 임원민
 임수연 임주빈 최현옥 최종미 홍순구 안홍숙 김순복 전영웅 김훈동
 오자영 왕성환 강순배 맹은선 김주경 손성현 권미숙 오정숙 전세종

월정헌금:

고속이 김남중 오복순 김미순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문금석
 배부례 이갑재 이성범 이성운 이재구 황선희 전영자 김순자 이해동

감사헌금:

김성한 조영순 윤정덕 구성실 윤미경 윤수진 우순덕 이용희 민동혁
 김수은 구자훈 김혜란 이계선 이소순 김남중 오복순 김순복 박병구
 오정숙 전성오 김병희 최문희 김용진 박효선 이종현 이민범 공재량
 황의일 안정숙 최숙화 광경선 무명5

생일감사헌금: 이인섭 김주경 허준호

100주년헌금: 무명1(헌금 누계 : 208, 630,000원)

	장혜숙	장혜숙	장혜숙	정두리
	노순옥	정경례	교회	서정순
	임정자	임정자	이재문	임정자
	문영혜	박경선	김진경	박경원
	안정숙	박애순	박애순	조병주
	박홍재	곽권희	김순복	백묘현
	박효선	허정운	허정운	임미심
	최숙화	권미정	권미정	이기분
	이순정	김금순	김금순	이봉옥
	이형숙	권미숙	이형숙	김필순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오현정
	백혜숙	정옥영	정옥영	정영선
	송양진	유경순	김수진	유경순
	이영란	박미영	방극숙	이영란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최영혜

길

가도 가도 아무도 없으니
 이 길은 무인의 길이다.
 그래서 나 혼자 걸어간다.
 꽃도 피어 있구나.
 친구인 양 이웃인 양 있구나.
 참으로 아름다운 꽃의 생태여—
 길은 막무가내로 자꾸만 간다.
 쉬어 가고 싶으나
 설 테도 별로 없구나.
 하염없이 가니
 차차 배가 고파온다.
 그래서 음식을 찾지마는
 가도 가도 무인지경이니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참 가다가 보니
 마을이 아득하게 보여온다.
 아슴하게 보여진다.
 나는 더없는 기쁨으로서
 걸음을 빨리 빨리 걷는다.
 이 길을 가는 행복함이어.

--천상병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
 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
 고 거짓 없는 참 사랑을 굳게 잡으십시오. 계산을 멈추십시
 오. 먼저 존경하고 먼저 사랑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보여주신 참 생명의 길을 힘써 따르겠습니
 다. 불평과 저주를 멈추고 축복과 격려가 넘치는 새 세상
 을 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소망이니 늘 동행하여 주시
 고 어떠한 역경을 만나더라도 기도하며 길을 찾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6월 동호회	성서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아름답도다, 형제자매의 사귄!	기도/오자영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윤 윤 선생 김인걸 장로	인도자 최성애 집사

6월	영접위원	한상익 박창운 박석희 허정윤 김금순 조항미
	헌금위원	방문성 장혜숙(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빛이 생명을 싹틔우면

나는 우리 현대인들이 이 세상을 하나의 정원으로 여기고, 원예를 더 많이 했더라면, 다른 모든 피조물과 땅에서 자라는 것들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름다움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아름다움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다.

원예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한결 아름답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하여금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원을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갈망에서 원예가 싹틀 때,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것이다. 베르자예프는 이렇게 말한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피조물과 사람과 세상을 보시고 떠올리신 개념이다.....이 세상의 변모야말로 아름다움의 완성이다”

나는 정원에 들어설 때마다, 회개한 죄수에게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희망을 갖는다. 나는 내 이마의 땀방울과 참회의 눈물을 통해 내 뒤뜰에서 낙원이 구체화되는 것을 본다. 정원은 구원의 심오한 상징이다. 그것은 정원이 인간 최초의 거주지였고, 하나님이 그곳을 우리의 궁극적 고향으로 여기셨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은 삶의 목표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그리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분 속에 자리하던 아름다움의 상이 가시적인 정원이 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가이사라의 성 바실St. Basil of Caesarea은 이렇게 말한다. “비옥한 땅은 온갖 화초를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성장시키고, (생산적이건 빈약하건 간에) 키 큰 나무들을 발육시키고, 달콤한 꽃향기와 화려한 빛깔들을 발현시키고, 자신에게서 난 모든 것을 낱알이 드러내 보입니다. 그것은 만물의 어머니인 자신을 아름답게 하려는 것입니다”(〈천지창조 6일간의 이야기〉 두 번째 설교). 아름다움만이 상하고 혼란스럽고 일그러진 세계를, 하나님이 태초에 “좋다, 아름답다” 선언하신 우주, 평화와 조화가 넘치는 우주로 변모시킬 수 있다.

내가 정원에서 찾는 아름다움은 잠재력이 깃든 땅 속에, 태양과 비가 싹틔우는 씨앗 속에 내장되어 있다. 나는 화초들의 필요와 습성에 맞게

뿌리를 구획하고, 무기물과 영양소가 들어 있는 거름을 준비하고, 씨앗을 줄 맞춰 뿌리고, 잘 퍼져 햇빛을 골고루 받도록 모종을 성글게 심고, 땅을 통기와 배수가 잘 되도록 일구기만 하면 된다.

내가 정원에서 배운 것은 이것이다. 즉, 아름다움은 선물이자 완성이란 것이다. 나는 아름다움을 교만한 마음 없이 겸손하게, 욕심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아름다움은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나는 그것을 존재하게 하거나 그것을 경험할 능력이 없다. 성 에프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낙원은 그대에게 익숙한 상들로
스스로를 감싸고 있다.
낙원이 그리는 상들로 자신을 감싸는 것은,
낙원이 빈곤해서가 아니라,
그대의 천성이 너무 무력해서
낙원의 탁월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대에게 익숙한
희미한 색깔들로 그려지면 그려질수록
낙원의 아름다움은 퇴색할 수밖에 없다.

-<낙원을 기리는 찬가> 11:7

그러나 에프렘이 주장한 대로, 낙원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실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아름답게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낙원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 타락한 세상에 깃든 아름다움은 구름에 가려진 태양과 같다. 우리의 망가진 ‘눈’으로는 그 그림자만을 볼 따름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름다움을 사랑하면서 속속들이 변화되면, 다볼산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감쌌듯이, 아름다움이 우리의 온몸을 비출 것이다.

하늘나라에서는 빛과 생명과 아름다움이 하나다. 빛이 정원에서 생명을 싹틔우면, 정원 구석구석은 아름다움으로 빛난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과 아름다움 자체이신 독생자는 빛의 아버지에게서 온다. 성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비겐 구로얀, <<정원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중에서